

정부의 돼지가격 안정대책 발표를 보고

- 돼지가격 회복시까지 수입쇠고기방출 중단해야

농림수산부는 지난 10월 10일 돼지가격이 장기간 생산비 이하로 낮게 형성되어 양돈농가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금년 4/4분기와 내년도 상반기의 「돼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89년 9월 현재 돼지 총사육두수는 5백46만7천두로 1년 전에 비해 9.5%가 늘어났으나, 모돈은 사육두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6월에 비해 9.6%가 감소한 70만5천두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돼지 사육두수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88년말부터 모돈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며, 연말에는 증가세가 약간 주춤해 5백30만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양돈농가 돼지 1두당 1만1천원 적자출하

농림수산부는 금년 들어서 사육두수가 계속 증가했고 또 경제성장률도 당초 정부의 예상치보다 훨씬 낮아졌기 때문에 돼지가격도 생산비(정부 추정: 10만3천원)에 훨씬 못미치는 9만원대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와같이 하락한 돼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현 89kg인 출하체중을 85kg으로 하향 조절하고 돈육소비홍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90년도의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모

돈 숫자를 현 수준인 70만5천두로 유지 ▲등록·허가업체 모돈 증식 연말까지 억제 ▲신규 양돈업 등록은 50두까지만 받아들이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농림수산부가 양돈불황의 심각성을 인식, 돼지가격 안정대책을 수립·발표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나, 지난 6월 발표한 대책과 대동소이하여 과연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으로 돼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냐는데 대해서는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출하체중 하향조절 지도” 외엔 돈가안정대책 없어

정부가 돼지가격 안정대책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기껏해야 출하체중을 89kg에서 85kg으로 낮추는 방법과 가격하락때마다 상투적으로 이용하는 등록·허가업체의 모돈 증식 억제외에 새롭고 알맹이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 특히 정부가 돼지 사육두수가 늘고 경제성장률이 당초 계획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뜻 이해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수입쇠고기와 돼지고기 통조림 수입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을 간과하고 있어 정확한 처방을 제시하지 못한 원인이기도 하다.

어쨌든 축산물이 마구 수입돼 낮은 가격에 판

〈표〉 돼지가격 및 생산비 동향

(단위: 천원/kg)

구 분	연 도	'87				'88				'89			
		3	6	9	12	3	6	9	12	3	6	9	12
돼 지 값	월	109	125	99	88	102	122	114	111	99	93	92	-
	연 평 균	110				109				97 (1~9월)			
생 산 비		95				96				103			

* 자료: 농림수산부

매되고 있고, 양돈폐수와 무허가축사로 양돈농가가 구속되고, 양돈분뇨 정화시설 설치비 과중으로 생산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마당에 출하체중 조절과 같은 구태의연하고 미약한 처방으로 양돈불황을 잡고 양돈농가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

현재 양돈농가들은 생산비 이하의 낮은 돼지가격으로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다. 돼지가격은 '87년 11만원, '88년 10만9천원에서 금년 9월엔 9만2천원까지 뚝 떨어졌다. 이는 생산비에도 1만 1천원이나 못미치는 금액이다.

양돈농가 금년 한해에 800억원 적자 예상

반면 '87년에 9만5천원이던 돼지 생산비는 '88년에 9만6천원, '89년에 10만3천원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연말까지 계산해서 금년도 평균 돼지가격이 9만5천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양돈농가들은 금년 한해에 8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국민소득은 몇 천불이 된다. 또 경제성장율은 몇 %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정작 양돈농가들은 여기서 소외된채 한탄의 눈물을 씹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출하체중 조절 타령만 할 것인가? 정부의 이번 대책은 무책이나 진배없다.

영세농가 조기출하하고 싶어도 출하할 곳 없어

출하체중을 낮추는 문제만 해도 그렇다. 현재 평균 89kg인 출하체중을 85kg으로 낮추겠다고 하는데, 원래 양돈불황시기가 아닌 정상시의 우리나라 평균 출하체중은 82-87kg이었다. 그런데 양돈불황이 심해지자 중소양돈농가들이 출하를 적기에 못해 출하체중이 늘어난 것이다.

일찍 출하하는 것이 가격도 많이 받고 이익인 것을 양축농가들이 알면서 왜 일찍 출하하지 않고 있겠는가? 2박3일간 계속되는 도축장의 차상계류와 제때 출하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적할 점은 불과 1개월전에 정부가 돼지고기를 수출유망품목으로 정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01년까지 7만톤의 돈육을 수출하겠다고 청사진도 밝혔다. 7만톤의 돈육을 수출하려면 350만두의 규격돈이 필요하다. 350만두의 돈육을 수출하려면 대기업양돈뿐만 아니라 전업은 물론 일부 부업규모까지도 규격돈 생산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자면 정부가 현재 85-90kg인 우리나라의 돼지 출하체중을 105~110kg으로 늘리는 사육방법을 권장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과는 관계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우선 출하체중을 줄여 급한 불을 끄겠다는 발상은 양돈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



한다. 차라리 정부는 돼지가격이 생산비 수준을 회복할때까지 싼값에 판매하고 있는 수입쇠고기의 방출을 즉각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돼지도체등급제를 시행하겠다는 마당에 고무줄 늘리듯 하는 출하체중 조절정책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출하체중 조절정책은 정부의 돈육수출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돈육수출기반마저 뒤흔드는 처사이다. 특히 85~110kg 일때 돼지의 성장이 빠르고 살코기를 가장 많이 생산한다는 점을 상기할때 이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자원낭비를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 조금만 기다리면 사과가 빨갭게 익어 재값을 받을텐데 출하물량이 많다고 덜익은 사과를 따서 출하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생산자만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이를 두고 육가공업계의 한 인사는 「정부는 입으로는 돈육수출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돈육수출기반을 망치게 한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돈육가격안정제도 도입하라”

따라서 정부는 차제에 돈육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예를 들면 돈육가격안정제도 등을 도입하고, 배합사료 등 축산원자재에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는 관세·부가세의 면제를 통해 양돈 생산비를 낮추게 해야 한다.

특히 최근 양돈업계의 현안으로 떠오른 양돈 폐수처리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선진국과 같이 대폭적인 보조금 지급과 장기저리 융자금을 지

원하여 양돈농가의 생업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돈육수출로 인한 잔여육이 일부 지방에 덤핑 판매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양돈불황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역양돈농가들의 원성을 받아들여 잔여육처리 대책과 육가공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방안이 장기적 대책이어서 지금 당장의 돼지가격 안정대책이 필요하다면, 영세양돈농가들이 89kg에 출하를 할 수 있는 출하장소와 시설을 대폭 늘리고, 또 불량모돈의 도축을 거부하는 일부 도축장의 잘못된 풍토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수매 비축도 대폭 확대해서라도 돈가를 생산비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이밖에도 돼지고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입쇠고기의 저가방출을 중단하고 적기에 출하를 하고 싶어도 출하를 못하고 있는 영세양돈농가를 위해 도축장 시설의 확충과 시설 현대화 작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양돈불황 때마다 되풀이되면서 생산원가를 크게 높이고 있는 원시적인 차상계류 문제도 계통출하제도의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이제 두달만 지나면 소시지가 수입개방돼 양돈업계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정부는 사전에 이에 대한 대비도 게을리 해선 안되겠다.

양돈농가들의 모든 자율감축도 아쉬워

양돈인들도 이제는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되 생산자 스스로 해야할 것, 즉 불량모돈의 자율적인 도태와 돈육소비홍보, 기술향상을 통한 생산비 절감 등은 스스로 하는 풍토를 마련해야 하겠다. 그리고 생산자 조직인 협회를 통해 양돈업계에 불리한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적극 참여하고 힘을 모아야겠다. **■** (김동성)